

중한 문학번역에서 등가의 적용 — 이중텐의 『중국의 남자와 여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강 수 정
(한국외대)

1. 서론

번역학은 기본적으로 “번역텍스트의 생산과 번역현상에 관해 기술하며 이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학문”(Bassnett 21)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전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번역’은 항상 학문적 논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성서번역에서 의미의 변질 때문에 이단으로 몰릴 위험이 있던 시대에도 ‘단어 대 단어’와 ‘의미 대 의미’의 번역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St. Jerome 4세기)¹⁾ 이후 번역은 한 언어에 포함된 의미를 다른 언어로 전환함에 있어 단어와 문장의 표층적인 차원이 아닌 내부의 의미구조와 사회적 맥락까지 아우르는 일련의 행위적 과정이라는 데까지 그 논의가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번역 활동이 단순한 언어적, 사회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점차 과학적인 정확성

1) 관련 내용은 정연일 23쪽 참조.

을 높이며 번역의 법칙을 정립하고, 번역이라는 행위의 보편성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까지 나아갔다.²⁾

과학적인 학문으로서의 보편적 적용에 대한 기대감은 중국에서도 다르지 않아서, 마후이취안(馬會娟)은 자신의 영문저서 『나이다의 번역이론에 관한 연구』(*A Study on Nida's Translation theory*)에서 기존 중국의 번역학이 고문과 미학에만 집착하는 동안, 서양의 번역학이 과학적인 언어학에 기반하여 번역을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물론 중국 역시 번역행위에 대한 논의를 번역학, 번역과학으로까지 발전시켜가고 있지만, 정작 양 언어 간의 번역은 오랜 교류에 비해 과학으로서의 번역행위에 대한 이론적 적용이 활발하지 못했다. 흔히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하며 과거 많은 역사를 공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언어 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양국은 엄연히 다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서로 이해가 쉽지 않은 상이함 역시 가지고 있어서,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접하게 되는 차이는 서로를 더욱 놀라게 하기도 하고, 한자의 경우, 동일 한자의 서로 다른 사용으로 인해³⁾ 오히려 번역에 있어 문장의 이해나 자연스러움에 치명적인 오류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문학번역은 일대일의 말의 대응이나 치환이 아닌, 전체 구조와 그

2) 투리는 기술론적 번역학을 통해 번역의 법칙을 발견한다. 관련 논의는 Toury 1995 참조.

3) 한국과 중국의 한자어의 경우 같은 한자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오히려 한자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경우 심각한 오역이 생기거나 어색해질 수 있다. 일례로 客氣는 한국어에서 ‘객 적게 부리는 험기’이나 중국어에서는 ‘겸손하다, 사양하다’ 등으로 사용되며 汽車는 한국어에서는 ‘기차, 열차’지만 중국어에서는 ‘자동차’이고 한국어에서 ‘노파, 할머니’의 의미인 老婆는 중국어에서는 ‘처, 마누라’이며 前年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지난 해’를 말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제작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영향은 단어의 수준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김혜림은 「한중 번역에서 나타난 同源記標素의 간섭에 대한 연구」에서 이를 포자미(faux amis)에 의한 오류, 결합상의 오류, 축어역에 의한 오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림 2003 참조.

안에 내포된 문화적 함축과 가치까지 옮겨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번역 결과물에 대한 이견이 적은 비문학번역과 달리 그 정의와 방법에는 일정한 견해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문학작품 번역물 텍스트 분석에서 드러나는 오류들이 번역학의 특정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파악하여, 그 오류 형태의 보편화 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학작품이라는 텍스트가 지니는 특징에 기반하여 적용 가능한 이론을 살펴보고, 나아가 중한문학번역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이(異)언어 간 번역을 평가할 경우, 기존의 전문번역가에 의해 이미 번역되어진 텍스트를 분석하지만, 본고는 중한문학번역에서 번역학 이론의 핵심 개념인 등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 혹은 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 요소들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관계로 번역행위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번역가를 지망하되 전문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통역번역대학원 1학기 수강생들의 번역텍스트를 분석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시간과 지면상의 제약을 고려해 짧은 텍스트 안에서도 문학번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대적 구어체로 쓰인 수필문의 형태이지만 그 안에 각종 고문을 인용한 이중톈(易中天)⁴⁾의 작품 가운데 기존에 번역되지 않은 『중국의 남자와 여자(中國的男人和女人)』를 선정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한번역에서 등가의 달성에 필요한 요인들을 고찰하고 중한번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번역이론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4) 이중톈교수는 중국의 저명한 사학자이자 방송학자로 문학, 예술, 미학,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을 두루 연구했으며 2005년부터 중국중앙방송(CCTV)의 방송강좌 프로그램인 ‘백가강단(百家講壇)’을 통해 삼국지, 초한지 등 고전을 쉽게 풀어 강의하여 스타덤에 올랐다. 중국에서는 ‘학계의 슈퍼스타(學術超男)’로 불리며 ‘이중톈현상’을 이끌기도 한 그는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여겨지던 역사적 문학적 지식을 생동감 있는 통속적 언어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이미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하고 있다. 방송강좌와 함께 ‘이중톈 수필체 학술저작-중국문화시리즈 4종(易中天隨筆體學術著作·中國文化系列四種): 『중국인을 말한다(閑話中國人)』 『중국의 남자와 여자(中國的男人和女人)』 『중국도시, 중국사람(讀城記)』 『품인록(品人衆)』 등의 출판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상했다.

2. 문학텍스트 번역에서 등가

등가라는 용어는 본래 수학과 형식논리학에서 유래하였으며 서로 뒤바꿀 수 있는 방정식의 요소들의 배열을 의미한다. 번역에서의 등가는 형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사고 대상 간에 유사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야콥슨(Jakobson 1966:233)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김효중 27 재인용). 야콥슨은 자신의 논문 「번역의 언어적 양상」(On Linguistic Aspect of Translation)에서 이 언어 간 번역은 “한 언어의 메시지를 개별 기호 단위가 아닌, 다른 언어의 메시지 전체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의미의 등가’를 주장한다(Jakobson 114). 즉, 이 언어 간 존재하는 구조와 용어의 차이로 인해 번역은 단어 대 단어의 치환이 아닌 ‘의미적 등가의 실현’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Fortunato Israël)은 텍스트가 지니는 의미의 형태가 언어로부터 일정하게 독립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언어가 형태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대상의 유사성이 번역으로 표현되고, 이는 효과의 등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충한다(이향 94-96)⁵⁾.

결국, 나이다(Nida)는 ‘원천언어의 분석 → 전이 → 수용언어의 재구성’이라는 번역의 3단계(Nida and Taber 33)를 제시함으로써 등가 개념의 구체화를 시도하게 된다. 나이다는 번역등가를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와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로 나누었는데, 본고에서는 등가의 개념에 역동적 등가를 적용해 보았다. 나이다의 역동적 등가는 번역이 목표언어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효과의 등가 원칙(principle of equivalent effect)에 바탕을 둔다. 즉 나이다에게서 번역의 성공 여부는 독후(讀後)반응에서 등가(equivalent response)를 달성했는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정연일 46). 본고에서는 나이다의 이러한 접근이 중국 문학작품번역에 적용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중토텐의 『중국의 남자와 여자』에서 원문을 읽은 독자가 받았던 감동을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을 읽는 독자도 최대한 비슷하게 느껴야 한다고 보았다.

5) 이향 등이 옮긴 『통번역과 등가』는 2002년 ESIT가 주최한 통번역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모음집을 번역한 것으로,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원문과 번역문의 연결고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등가의 적용과 그 특성을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개념 자체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등가의 불확정성이 발생하는데, 김효중(36-42)은 ‘번역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 ‘텍스트 고유의 요인’, ‘독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 이라는 세 가지 이유에 의해 등가의 불확정성이 발생된다고 밝히고 있다.

‘번역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은 번역자가 전달자인 동시에 현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특별한 언어적, 언어외적 경험을 통해 번역자적 가치체계를 스스로 형성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번역자가 텍스트 해석자라는 책무에 기반해서 자신의 문화적 여과장치⁶⁾나 선형적 지식인 스키마를 통해 번역문에 원문의 사고와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거나 의미론적 가치를 결여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텍스트 고유의 요인’은 번역어로 기호화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즉 상이한 문자 체계를 가진 언어의 전환에서 등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체적 특성에 관한 문제로, 원어와 역어의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독자고유의 번역등가 문제’는 타깃 독자층에 기인한다. 특수한 독자층의 요구에 따라 등가가 방해받는 것을 말한다.

결국 김효중은 번역학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평가될 만한 번역등가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보았는데, 적어도 번역될 수 있는 텍스트의 모든 객관적 요인을 번역등가 양상에 따라 기술할 수 있어야 하고 비교개념에 관계되는 객관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중텐의 ST-TT분석에서 불확정성 요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중한 번역에 나타나는 등가 개념의 양상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중국의 남자와 여자』의 텍스트 타입 분류

야콥슨이 주장한 이래 등가는 번역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나, 사실 이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정의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등가개념 자체가 번역자, 텍스트, 독자의 특수성 등에 연관되어 있고

6) ‘문화적 여과장치’라는 용어는 하우스가 처음 사용했다. House 1997:114 참조.

7) 인지심리학적 접근으로 인간이 살아오면서 습득한 선형적 지식을 말한다.

등가 성립조건도 기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객관적 기준이 없으므로 인해 등가어 선정은 번역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콜러(Werner Koller)는 등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텍스트가 지니는 유형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텍스트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번역자가 텍스트의 가치위계(hierarchy of values)를 세워 등가요건의 위계를 추론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번역 텍스트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유형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번역에 앞선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한 것이다(Koller 1979b/89: 104 정연일 62에서 재인용).

라이스(Katharina Reiss)는 등가를 연구하면서, 단어나 문장이 아닌 텍스트 수위에서의 등가에 주목한다(Reiss 113-14). 라이스는 텍스트 타입을 정보적, 표현적, 호소적 텍스트로 나누고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텍스트 타입에 따라 각기 다른 번역방법과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 텍스트 타입에 따른 기능적 특징과 번역방법

텍스트 타입	정보적 (informative)	표현적 (expressive)	호소적 (operative)
언어 기능	정보적 (객관적 사실 전달)	표현적 (발신자의 태도 존중)	소구적(appellative) (수용자에게 호소)
언어 차원	논리적 (logical)	미학적 (aesthetic)	대화적 (Dialogic)
텍스트 초점	내용중심	형식중심	소구중심
TT 역할	지시적 내용의 전달	미학적 형식 전달	원하는 반응 유도
번역방법	‘평이한 산문체’, 필요에 따라 설명을 명시화	‘작가의 관점과 동일시’ 전 략, ST·저자의 관점에서 번역	‘개작, 번안’ 가능, 효과의 등가 달성
대표적 텍스트	신문기사, 보고서, 논문, 해설서, 설명서	시와 같은 문학작품, 자서전	광고, 설교문, 풍자

(Reiss 1971, 황세정 2007에서 재인용)

그러나 문제는 많은 텍스트들이 명확히 하나의 타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傳記)는 정보적인 동시에 표현적인 텍스트이고, 풍자문학의 경우 표현적인 동시에 호소적인 텍스트에 해당한다. 이러한 혼성된 텍스트 타입에 대해 라이스는 ST의 가장 두드러진 기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번역가의 역할이 단순히 텍스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텍스트에 대하여 가장 지배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텍스트를 범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이중텐 작품의 경우, 라이스의 분류에 따르면 표현적 텍스트에 가깝다. 그의 저서에는 다양한 중국어와 중국문화 특유의 표현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통속적 언어의 교묘한 운용과 독설로 중국의 사회상을 반영해내고 있다. 또한, 구어체와 문어체가 혼용되고 다양한 고전을 인용하되 이를 통속적인 구어로 해설한다.⁸⁾ 이중텐의 작품은 중국 고전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입장에서 작가주의적인 작품이다. 따라서 번역에 있어 발신자의 의도와 태도가 존중되어야 하며, 그의 미학적인 표현이 번역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남자와 여자』는 수필체로 강의하듯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점에서, 또한 중간 중간 끊임없이 중국 고전을 인용하며 중국인들의 현대상을 풍자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호소적 텍스트의 성격이 혼재해 있다.

이렇듯 라이스의 텍스트분류에 대한 먼데이(Munday, 정연일 102)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우려처럼 하나의 텍스트를 명료하게 표현적이라거나 정보적 또는 호소적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텍스트에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중심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이 텍스트를 분류하는 주요 기능이 된다. 이러한 논점에서 이중텐의 『중국의 남자와 여자』는 호소적 텍스트의 성격을 지닌 표현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뉴마크(Newmark)의 말처럼 “작가의 위치가 신성함으로 번역가는 원문의 의도를 중시하여야” 한다. 뉴마크는 표현적 텍스트를 작가의 권위에 따라 ‘매우 상상적인 문학’, ‘작가중심적 서술문’, ‘자서전, 개인적 서신’ 등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세분하고 있는데(황세정 40 재인용), 『중국의 남자와 여자』는 이중텐이라는 작가의 위치나 언어력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면에서 작가중심적 서술문이라 규정할 수 있다.

8) 바이투 백과사전 (<http://baike.baidu.com/view/19398.htm>)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번역학의 핵심적인 등가 개념을 중국문학작품의 번역에 적용하여 그 개념적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ST는 이중톈의 『중국의 남자와 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이 ST의 한국어 번역을 위한 이론적용에 이 언어 간 번역의 등가를 활용하였다. 또한 콜러와 라이스의 권고에 따라, 등가의 적용에 앞서 ST의 텍스트 유형을 라이스와 뉴마크의 유형구분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ST가 호소적 특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작가의 권위에 기반한 표현적 텍스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ST의 번역은 미학적 형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작가의 관점과 ‘동일시’하는 번역전략이 요구되며, 상황에 따라 ‘효과적 등가’를 추구할 수 있다.

반면에 등가를 적용하기 위해 텍스트의 특성을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등가 개념의 방해요인이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등가 개념의 상대적 불확정성인 번역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 텍스트 고유의 요인, 독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이라는 세 가지 양상이 ST의 텍스트 분류에 따른 등가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고는 중한문학번역에서 등가가 구현되는 방식과 이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실제 수업시간에 진행된 번역 실험 결과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연구를 위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1학년 1학기 한중과 수강생 11명을 대상으로 이중톈의 『중국의 남자와 여자』 가운데 1장 1절의 내용을 약 5일간의 시간을 주고 미리 나누어 준 다음 11명을 4개 조로 나누어 번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을 4개 조로 나눈 이유는 번역 분량이 약 7쪽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내용이 까다로운데다 피실험자들이 문학번역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각자 번역을 마친 후 조별 토론을 거친, 즉 어느 정도 다듬어진 1차 감수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피실험군은 모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으며 조별 토론을 통한 논의와 내부 검증이 가능한 상태였다.

4개조 11명은 모두 한국인으로, 본 실험에 쓰인 B-A번역에서 모두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해 번역하였고 대부분이 중국에서 1-2년 정도 연수를 경험한 20

대 중반에서 후반의 학생들이다. 성별로는 10명이 여성, 1명이 남성이다. 번역 결과에 나타난 오역이나 적합하지 않은 번역 등 등가 실현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주간의 수업시간을 활용, 약 4시간의 토론을 거쳐 함께 검토했다.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등가적용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례는 총 21개로 산출되었는데, 이들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전체 21건 가운데 번역자 고유의 등가 양상을 보인 예는 총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문화적 여과장치가 필요하나 번역자가 이를 작동시키지 못한 사례가 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텍스트 고유의 번역등가 문제가 발생한 것은 2건, 독자고유의 번역등가 양상을 보인 예가 2건, 텍스트 유형분류 전략을 취하지 못해 미학적 형식의 전달에 실패한 사례는 6건으로 다수가 발생했다. 이 외에 특수한 사항으로 중한번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는 1건 발생했다. 또한 단순 번역 오류가 2건이 나타났으나 이는 B언어 숙달의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번역실험에서 나타난 오류유형과 발생 건 수

오류 유형	발생 건 수
번역자 고유의 등가 양상 (이 가운데 문화적 여과장치의 문제)	8 (5)
텍스트 고유의 번역등가 문제	2
독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	2
미학적 형식의 전달 실패	6
중한번역의 특수성	1
단순 번역 오류	2
총	21

5. 사례분석

본 사례분석은 그 수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넘어, 중한 번역의 구체적 사

례를 고찰함으로써 중한 번역에서 등가개념의 보편적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아래의 사례들은 상술한 번역 실험에서 나타난, 등가에 실패한 21개의 사례 가운데 각 유형 별 대표적인 사례로, 정확한 대조를 위해 원문과 함께 피실험군의 번역문 가운데 등가 실현의 저해요소가 드러나는 전부 혹은 일부를 제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사례1> 번역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

원문) 奶油小生

번역1) 결만 번지르르한 남자

번역2) 백면서생

번역3) 남자답지 않은 남자

번역4) (누락)

이 단어는 1장 남자 1절의 제목으로 사용된 단어이다. 奶油小生은 결만 번지르르하고 예쁘게 생긴 ‘꽃미남’같지만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남성을 말한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로 봤을 때는 번역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가 모두 틀리지 않다.

하지만 본 텍스트는 표현적 텍스트로 ‘작가의 관점과 동일시’하고 ‘미학적 형식’을 살려주는 번역전략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사례의 번역에서는 ‘등가의 불확정성’ 즉, 등가를 저해하는 요소의 하나인 ‘번역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의 작용으로 위와 같은 기호의 전환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레비(Levy)는 번역자가 원어를 역어로 옮기는 경우 원문을 변경시키려는 경향을 말하며 “외국 용어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등가 또는 유사등가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의 것 하나를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의미론 상 특수한 의미를 결여할 수도 있다.”(김효중 37 재인용)고 말한다. 다시 말해 번역자들은 외국어에 해당하는 등가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거나 번역자 자신의 선형적 지식에 의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어휘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등가를 저해한 것이다. 이는 본 절의 제목이며 본문에 ‘백면서생’이 ‘奶油小生’과 함께 언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면서생’은 적절치 못하며, 1절의 내용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계집같이 예쁘장하게 생기고 비리비리하며 책임감도 없고 남자답지 못한 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토론을 거친 결과 이를 ‘기생

오라비'로 함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례2> 텍스트 고유의 번역등가 문제

원문) 中國有句老話, 叫"頭發長, 見識短".

번역1) 중국에는 '머리카락만 길고 지식은 얕다'라는 말이 있다.

번역2) 중국 속담에 '머리카락은 길고 식견은 짧다'라는 말이 있다.

번역3,4) 중국 옛말에 '머리가 길면 식견이 짧다'는 말이 있다.

밑줄 친 부분의 중국 속담에서 '머리가 길다'는 것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속담은 '여자들은 식견이 낮다'며 여자를 폄하하는 말이다. 번역문을 보면 우선 번역1, 2의 경우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 자체를 원뜻과 달리하여 오역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언어에서는 찾기 힘든 중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중국어는 표의문자로 글자 하나하나가 갖는 뜻이 각기 달리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발달하지 않거나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듯 관용적인 표현들의 쓰임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문장의 앞뒤가 순접인지 역접인지의 파악이 난해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는 중국어의 언어적 특성에서 기인되는 번역의 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례2>는 '텍스트 고유의 번역등가' 문제로 인해 야기된 등가의 저해 요소가 작동한 예라 하겠다. 다시 말해 "역어로 기호화하는 단계에서 발생"(김효중 38)한 문제인 것이다. 번역3, 4의 경우는 문장 구조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번역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독자는 이 속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중국어에는 존재하나 한국어에 이와 등가를 이루는 속담이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텍스트 고유의 번역등가 문제라 하겠다.

<사례3> 미학적 형식의 전달(리듬의 파괴)

원문)所以一遇到麻煩, 他們的本事, 无非一是跪, 二是哭, 三是一病不起, 最后只能靠動了惻隱之心的女人或俠客前來搭救。

번역1) 어려움에 봉착하면 무릎을 꿇고 울거나 앓아눕는다. 결국에는 여성이나 협객이 측은지심으로 그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번역2)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고작 무릎 꿇기, 울

기, 병으로 몸져눅기 뿐이다. 결국은 여인의 측은지심을 사거나 협객의 구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4개 조의 번역 가운데 3개 조는 모두 번역1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번역2의 경우는 명사형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의 번역은 의미상 큰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문의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행동의 나열이 아닌, ‘一是跪, 二是哭, 三是一病不起’로 ‘첫째는 무릎꿇기요, 둘째는 울기, 셋째는 병으로 몸져눅기다’로 각각의 행위에 첫째, 둘째, 셋째를 고의로 붙여 이들의 한심한 행위에 언어적 리듬감을 더해 강조해 주고 있다.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모두 평이하게 의미만을 전달하면서 원문의 미학적 리듬을 파괴한 것이다.

<사례4> 미학적 형식의 전달 (어순)

원문) 現在明白了: 原來是女人保護救助男人的"神聖使命"所使然。

번역1) 이제 보니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고 구제한다는 ‘신성한 사명’ 때문이다.

번역2) 하지만 이제 보니 남자를 보호하고 구해야 한다는 여자의 ‘신성한 사명’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번역3)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고 구해야 한다는 ‘신성한 사명감’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번역4)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원래부터가 여자는 남자를 보호하고 구원해줄 ‘신성한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어째서 중국 고전 속의 멋진 여성들이 하나같이 어리석은 남성들에게 시집을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알 것 같으면서 고전의 남성상을 비꼬는 장면이다. 이 부분의 번역은 문학번역에서의 어순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중한번역에서 원문과 번역문의 경우 서로 다른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도착어에 적합하게 어순을 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하지만 문학작품에서 상황은 달라진다. 문학작품의 경우, 작가는 자신의 문학적 의도에 따라 독특한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순의 변화를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사는 문장의 뒤에 배치되는 한국어라 할지라도 사례의 원문과 같이 원문에서 ‘콜론’까지 사용해 부각시킨 경우, 그

미학을 살려주는 것 역시 번역자의 의무일 것이다. 위의 번역문을 보면 1,2,3조 모두 한국어로 부드럽게 표현했으며 오역이 없었음에도 4조의 번역과 같은 리듬감을 갖기 힘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례5> 독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

원문)(這番說辭的水平堪與蘇秦、張儀之流媲美，所以《擣紅》一折，也是《西廂記》最精彩的片段之一).....

번역1, 2, 3) 홍낭이 노모를 설득시키는 부분인 『고홍(擣紅)』은 소진(蘇秦), 장의(張儀)에 견줄만한 『서상기(西廂記)』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번역4) 홍낭이 마님을 설득하는 부분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천하를 들쭉 았던 유명한 달변가 소진(蘇秦)이나 장의(張儀)의 그것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이 작품의 백미로서 홍낭이 기지를 발휘해 마님을 설득시켜 결국 혼인을 허락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홍(擣紅)」은 『서상기』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목으로 꼽힌다.

원문을 보면, 홍낭이 노부인을 설득하는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괄호’ 안에 이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중국인인 원작자는 중국독자를 상대로 쓴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모두 역대의 달변가로 알고 있는 소진과 장의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 바로 이들에 견줄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번역본을 읽게 되는 한국독자들의 경우 문맥상 「고홍」이 『서상기』라는 극 중 유명한 장면일 것이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소진과 장의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게 된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해 번역된 텍스트는 두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원문과 번역문에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야 하고, 도착어 문화권에서 번역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이향 93-94)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는 번역자의 개입을 통한 ‘효과적 등가’의 달성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읽는 중국 독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당 장면에서 홍낭의 달변의 정도를 감지할 수 있었듯이 번역문을 읽게 되는 한국독자도 번역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2,3조의 번역은 원문과 형태적, 의미적으로 일치하지만, 이런 면에서 효과적 등가에는 실패했다 할 수 있다. 또한 원문에서도 이 부분을 ‘괄호’로 처리해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번역자가 독자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해 개입하는 것이 원문의 미학적 형식을 해하지는 않는다.

<사례6> 문화적 여과장치

원문) 不是齒如白玉，面若桃花，便是腰似楊柳，聲如雛鳳，地地道道的“女里女气”。

번역1) 백옥 같은 치아와 복사꽃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 아니라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는 허리, 봉황 울음같이 멋진 음색, 진짜 같은 ‘여성스러움’ 때문인 것이다.

번역2) 백옥 같은 이에 복사꽃처럼 어여쁜 얼굴,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리는 허리와 옥구슬 같은 목소리는 천상 ‘여자’다.

번역1에서는 不是~ 便是~의 용법을 오역한 부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B언어 숙달의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넘어가기로 한다.

밑줄 친 부분의 번역은 번역자의 문화적 여과장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聲如雛鳳’은 직역하자면 ‘목소리가 마치 어린 봉황과 같다’인데, 鳳凰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새로, 여기서 鳳은 수컷을, 凰은 암컷을 말한다. 따라서 雛鳳이라 함은 ‘어린 수컷 봉황새’로 중국에서는 ‘아직 변성이 되지 않은 아름다운 소년의 목소리’를 비유할 때 ‘聲如雛鳳’을 사용한다. 현대 번역자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채 이를 ‘봉황 울음같이 멋진 음색’이라 번역하여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의 독자가 읽을 경우 ‘멋진 남성의 목소리’를 연상시킬 여지를 크게 두었다. 손지봉은 「번역과 문화」에서 번역은 “이질적인 두 언어 간의 소통을 위한 것이요, 언어가 그 나라 문화의 정화임을 생각할 때 번역에 있어서 문화를 중요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문학 번역에서의 “문화 이해의 힘”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번역은 원작을 읽을 수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원작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언어는 물론이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이질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도 포함하므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변용이 필요하다”(한국문학번역원 29-31)⁹⁾는 말이다. 바로 <사례6>의 경우 번역자는 ‘문화적 여과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번역자는 말만을 옮기는

9) 한국문학번역원이 출판한 『문학번역의 이해』 가운데 손지봉의 논문 「번역과 문화」 참조.

기술자가 아닌 양쪽 문화의 교량 역할을 하는 ‘문화적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사례7> 문화적 여과장치

원문) 這就頗沒有見識了。難怪紅娘要教訓他：“街上好賤柴，燒你个傻角。”

번역1) 이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니 홍낭에게 “그렇게 되면 거리에서 싸구려 장작을 사다가 그 몸뚱이를 태워버릴 거요.” 라는 편잔을 듣기에 충분했다.

번역2) 아, 이렇게 어리석은 수가! 홍낭은 그를 꾸짖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싸구려 땔감으로 바보 같은 당신을 태워버리고 싶군요.”

번역3)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홍낭이 그에게 “죽으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땔감으로 당신같은 바보를 태워버리죠”라고 편잔을 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번역4)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면 정말 심각한 바보임이 틀림없다. 홍낭이 이 말을 듣고 “그러기만 해보세요. 길거리에서 팔다 남은 장작으로 목매단 시체를 채도 안 남기고 다 태워 버릴 테니까요”라며 면박을 준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장면은 결혼 반대에 부딪힌 장생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묘사하는데, 장생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앵앵의 몸종인 홍낭 앞에 무릎 꿇고 애걸하며 아씨에게 마음만 전할 수 있다면 바로 목숨이라도 끊겠다며 징징댄다. 이런 한심한 꼴을 본 홍낭이 이에 대꾸하며 “街上好賤柴，燒你个傻角。”라고 말한다. 이 말은 현 중국어에서도 목숨을 가지고 어리석게 구는 사람에게 “죽고 싶으면 죽어, 뒤처리는 걱정 말고”라며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를 갖고 사용하는 말인데 번역자들은 이를 하나같이 글자의 직역에 가깝게 “태워버린다”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전의 유명한 문구가 현대에 와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야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 문구의 번역 자체만을 본다 하더라도 “몸뚱이/시체/당신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글자만을 그대로 옮겨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몸종이 자신의 아씨를 사랑하는 도령이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몸뚱이를 태워버리고 싶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문맥상, 표현상, 어감상 모두 맞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은 “싸구려 땔감을 주워다 시체 처리는 해드립니다.”라며 상대가 감히 자결을 할 위인도

되지 못함을 파악하고 죽을 테면 죽으라며 비아냥거리는 장면인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번역자의 B언어 국가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은 다시금 강조된다.

<사례8> 중한번역의 특수성

원문) 要不然就是双眼圆睁，牙关紧咬，脸色惨白，大叫一声，昏死过去，直挺挺地倒在地下。《白蛇传》中的许仙，就这样吓死过一回，害得白娘子只好带着身孕，去盗仙草。

번역1) 그것도 아니면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를 악물고 얼굴색이 창백해져서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기절해 쓰러져 버린다. 백사전의 허선이 바로 이렇게 놀라 죽어서 백낭자(白娘子)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신선초를 훔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번역2) 아니면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이를 꼭 깨물며 창백한 안색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다. 『백사전(白蛇傳)』의 허선(許仙)도 이렇게 기절하는 바람에 백낭자(白娘子)가 할 수 없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신선의 약초를 훔치러 갔던 것이다.

이 부분의 번역은 명확히 두 팀씩 각기 다른 번역으로 나뉘어졌는데, 앞 절에 나오는 ‘昏死過去’는 4개 조 모두 문맥을 고려해 ‘죽은 것’이 아닌 ‘기절한 것’으로 번역한데 반해, 뒷 절의 ‘嚇死過一回’는 2개 조는 ‘놀라서 죽은 것’으로, 나머지 2개 조는 ‘기절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

이는 중국어의 언어적, 문학적(특히 고전문학) 특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타 언어와 달리 중국어는 시제나 보어의 쓰임 등과 같은 문법적 요소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일례로 ‘死(죽다)’를 사용한 표현의 경우, 만일 앞 뒤 맥락의 전개 없이 ‘餓死了’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이는 ‘배가 고파 죽겠다’로도 ‘굶어 죽었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화자의 상태나 앞 뒤 맥락의 전개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중국어의 특징으로 인해 중한 번역자는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사례8>의 경우, 앞 절의 내용은 맥락 상 의심의 여지없이 ‘죽을 정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들이 모두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로 번역했다. 그러나 뒷 절의 경우 『백사전(白蛇傳)』이라는 중국 고전의 내용을 모른다면 이 부분에서 허선이 정말 죽었다가 백낭자가 구해 온 신선초를 먹고 극적으로 희생한 것인지, 아니면 죽

을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놓고 쓰러져 백낭자가 구해 온 신선초를 먹고 회복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게다가 중국 고전의 경우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며, 판본마다 스토리 전개와 내용에 차이가 있어 하나의 판본을 보았다고 해서 모든 맥락이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중국의 언어적 특성과 중국 고전문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중한번역에서 등가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분석은 등가이론의 적용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등가의 불확정성을 통해 설명해 본 것인데, 본고에서는 ‘번역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번역행위는 언어적 수행의 일종으로 인간행위에 포함된다(Wilss 1981, 김효중 36에서 재인용).” 따라서 “번역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해결책 중 주어진 언어맥락 및 발화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찾아나가는 작업이므로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메시지의 언어적 구성성분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이향 93) 다시 말해, 번역이란 “번역의 주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으로, 번역사 개인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그 개인의 언어적 활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습득한 선행적 지식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번역자 개인으로 인해 야기되는 번역등가 양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학번역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 영역 확장과 다양한 문학적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작가의 의도에 보다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례1>에서와 같이, ‘틀리지 않은’ 다양한 표현 가운데 토론을 통하여 주제의 내용을 보다 함축할 수 있는 용어를 모색한 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번역자의 ‘문화적 여과장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스라엘은 「원문과 번역문의 연결고리」¹⁰⁾에서 번역된 텍스트는 “원문과 번역문에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야 하고, 도착어 문

10) 이향 외 옮김. 2004. 『통번역과 등가』는 2002년 ESIT(파리 제3대학 통역번역대학원) 주최로 열린 통번역학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 모음집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이 가운데 ESIT의 Fortunato Israël교수가 발표한 「원문과 번역문의 연결고리」(p87-104)참조.

화권에서 번역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추가되어야”한다고 말한다. 특히, 문학번역의 경우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이질성을 직관할 수 없는 독자를 위한 번역자의 ‘문화변용’(한국문학번역원 31)”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필요성은 본고의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사례6>과 <사례7>에서 번역자들이 중국어와 중국문학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오역 아닌 오역을 행했으며, <사례5>에서는 ‘독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효과의 등가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심오한 중국문화의 저변을 읽어내지 못할 경우, 번역자는 글자 그대로의 직역을 통해 텍스트를 변용시키고 심할 경우 의미의 파악마저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들은 “지식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단어치환식 번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단언한 레더러(Marianne Lederer)¹¹⁾의 경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고전문학의 경우, <사례8>에서 보듯, 하나의 작품, 혹은 소스에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 관계로,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경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번역의 일반화나 표준화, 심할 경우에는 오역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는 중국문학작품 번역의 특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6. 결론

이중텐의 작품들은 중국고전의 역사적 문화적 지식을 생동감 있는 현대어로 풀어내며 중국인들에게 고전의 미학에 대한 재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의 작품속의 언어는 현대어와 고어를 넘나들며, 풍자와 해학과 교훈을 설 틈 없이 독자들에게 발산하고 있어 중국어라는 언어적 기호에 익숙한 이들조차 그 해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문학작품을 번역하는 이들에게 이중텐의 작품은 중국어라는 언어적 문제에 덧붙여, 중국고전과 역사, 문화, 생활상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국문학 번역자의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11) 이향 외 옮김. 2004. 『통번역과 등가』중 「‘대응’과 ‘등가’: 언어차원의 번역과 담화차원의 번역」(p13-3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번역이론을 중국문학작품에 적용하여 이론적 보편성을 검증해 보기에, 번역자가 텍스트를 재해석하여 그 방향을 설정하는 텍스트 분류 방법은 중국문학의 복잡한 언어적, 문화적 특징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기준이 되어 주었다. 본고에서는 이중텐의 문학작품이 ‘미학적 형식을 전달’하고 ‘원문의 의도를 중시’하여 번역해야 하는 ‘표현적 텍스트’라 규정한 바 있는데, 분석을 통한 사례에서 ‘미학적 형식의 전달’에 실패한 사례가 매우 두드러지게 파악되었다. 이는 번역자들이 문학번역이라는 텍스트 해석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을 수행함으로써 인해 텍스트가 지니는 해석적 미학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번역자들의 번역이 형태나 의미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문학텍스트의 특성과 해석에 기반한 정확한 번역전략을 취하지 못하여 많은 부분 텍스트의 미학적 형식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이중텐의 작품을 표현적 텍스트로 규정하고 작가중심의 서술에 기반하여 그의 미학적 표현을 살리고자하는 노력은 문학작품으로서의 그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문학의 현란한 언어적 구사와 해석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번역자가 텍스트의 가치위계(hierarchy of values)를 세워 등가요건의 위계를 추론하여, 텍스트 유형에 적용하는 전략은 중국문학작품 번역에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또한, 중국 문학작품에서 등가의 적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등가이론의 적용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등가의 불확정성에 기대어 설명해 보았는데, 총 8개의 사례를 통해 중한 문학번역에 등가가 적용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유사한 사례가 다양하게 추출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뽑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사례분석을 통해 ‘번역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번역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 ‘텍스트 고유의 요인’, ‘독자 고유의 번역등가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가의 불확정성 요인은, 그 적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석의 자유로움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등가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구체적 연구 지침을 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는다. 덧붙여 ‘문화적 여과장치’ 혹은 ‘문화 변용’ 등으로 불리는 번역자의 문화적 개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또한, 그 적용 가능한 틀의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림. 2003. 「한중 번역에서 나타난 同源記標素의 간섭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제14집(2003년 12월), 중국어문학회, 603-639.
- 김효중. 2000. 「번역등가의 개념과 유형 설정」, 『번역학연구』 1권 2호. 한국번역학회, 27-46.
- 손지봉. 2006. 「문학번역 평가기준에 관하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제8권 1호.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87-106.
- 이향 외 옮김. 2004. 『통번역과 등가』. 서울:한국문화사. (Fortunato Israël (ed). 2002. *Identité, altérité, équivalence?: La traduction comme relation*. Paris & Caen : Lettres Modernes Minard.)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 (Jeremy Munday. 2000.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 Routledge.)
- 한국문학번역원. 2007. 『문학 번역의 이해』. 서울:북스토리.
- 황세정. 2007.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성에 따른 번역 방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ssnett, S. 2002. *Translation Studies*. 3rd Edition. London: Routledge.
- House, J. 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Tübingen: Niemeyer.
- Jakobson, R. 1959/2000.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L. Venuti (ed) (2000). 113-18.
-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Nida, E. A. and C.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Reiss, K. 1977/89. *Text 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translated by A. Chesterman, in A. Chesterman(ed.) 1989, 105-15.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PA:John Benjamins.
- Wilss, W. 1977. *Übersetzungswissenschaft. Probleme und Methoden*, Stuttgart: E. Klett, translated(1982) as *The Science of Translation. Problems and*

Methods, Tübingen:Gunter Narr.

馬會娟. 2003. 《奈達翻譯理論研究(A Study on Nida's Translation theory)》.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번역 실험에 사용된 텍스트:

易中天. 1999. 《中國的男人和女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Abstract]

Application of equivalence in Chinese-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The Chinese Male and Female*”
by Yi, Zhongtian

Kang, SuJ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ough modern translation theories were developed into various fields, they seldom show any interest in Chinese-Korean translation. This study applies the modern translation science which based on the theory of dynamic equivalence to the translation process of Chinese writer Yi, Zhongtian's work of “*The Chinese Male and Female*”, which is to be translated from Chinese into Korean. To materialize the theory of dynamic equivalence in the process of 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 translation tactic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texts. It means Yi, Zhongtian's work, according to ‘The Text Type and Assessment’(Reiss, K.), has been defined as the expressive text, from which the translation work will proceed based on the aesthetic point of view.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factors of uncertainty, such as the translator's arbitrary decision, text heterogeneity, the reader's arbitrary decision. It doesn't contribute very much to the verification of the certainty of the equivalence, because of their extensive application. But the categorization of texts, which classifies texts according to their type and helps to apply different translation tactics, makes it easy to embody the equivalence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from Chinese into Korean.

It is also known that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ranslator's cultural intervention, which is also called ‘the cultural filter’,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formation of Chinese into Korean translation theory.

▶ Key Words: Chinese-Korean translation, literature translation, equivalence, text type, cultural filter

강 수 정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xiaojiang@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교육, 방중통번역, 문화적 여과장치

논문투고일: 2009년 07월 15일

심사완료일: 2009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09월 05일